

양성평등서 우수 성과 이뤘다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올 사업운영 결과

젠더문화축제 30개 기관 참여... 1300여명의 도민과 함께 해
교육·취업지원·문화사업·네트워크 등에서도 많은 성과 거둬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신수미 센터장)는 18일 오전 센터 세미나실에서 2017년 사업 운영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센터는 올해 '성평등 전북, 행복한 여성과 가족'이라는 목표 하에 여성과 가족을 위한 친화환경 조성 및 여성능력개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 결과, 교육·취업·양성평등·문화·네트워크 등 5개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먼저 교육사업 분야에선 4차 산업에 맞는 신규과목 발굴 운영에 질 높은 강의를 제공하고 대상층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일반 교육프로그램은 208 과목을 운영하여 4,868명의 교육생을, 기업인력 수요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직업교육훈련

과정에서는 11과목을 운영하여 200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경력단절여성 등의 특성을 고려한 시스템 구축으로 1만802명의 취업을 성공 시켰다. 이중 2,602명(57%)은 상용직으로 취업했고, 기업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200명의 교육생 중 167명(84%)이 취업에 성공했다. 또한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2017년 전국새일센터 운영 사업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A등급을 받았다. 양성평등 분야에선 제6회 젠더문화축제에 30개 기관이 참여, 1,300여명의 도민과 함께 해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여성인재아카데미는 직접 시·군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여

성중간관리자 발굴 및 역량강화 교육을 펼쳤다. 문화사업의 경우 센터 1층 문화공간 소소담(談)에서 기획 전시 및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열린 문화공연을 진행하는 등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네트워크 사업은 매월 첫째 주 화요일 전북 여성화요간담회에서 다양한 주제로 정례 모임을 가졌으며, 전북여성신년하례회와 전북지역 여성회관장 협의회 등을 통해 지역 여성계와 활발한 의사소통을 나눴다. 또한 여성친화일촌기업 현장 방문, 도내 일자리 관련 유관기관 공동협력 취업박람회 개최, 타지역 유관기관과 상호업무교류협약(MOU) 체결 등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전북여성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자 했다. 신수미 센터장은 "성평등한 사회구축과 여성능력개발, 경제활동을 위해 2017년을 빠르게 달려왔다"며 "내년에도 이를 위한 사업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해은 기자



전주문화재단과 익산문화재단, 그리고 완주문화재단이 최근 익산에서 '청년을 부탁해'라는 주제로 '전북 14개 시군문화정책 콘서트'를 열었다. 사진은 56명 시민 평가단의 현장평가 및 시상식.

전주문화재단(이사장 김승수)·익산문화재단(이사장 정현율)·완주문화재단(이사장 박성일)은 14일 익산시 WM 컨벤션 트레이닝룸(원광대학교 내)에서 공동 주최·주관한 '2017 전북권 14개 시·군 문화정책 콘서트'를 마무리 했다. '청년을 부탁해'란 주제로 열린 이번 문화정책 콘서트에선 도내 14개 시·군 참가기관이 청년문화 정책발표, 지역문화 활동 사례발표(청년 중심), 농촌활동 등 지역연계 사례발표, 지역 내 우수문화 활동사례 등을 공개발표 했다. 이어 사전에 선정된 56명 시민 평가단의 현장평가 및 시상식이 이뤄졌다.

익산시 익산문화재단, 전주시 전주문화재단 등 4곳이 선정됐다. 이와 함께 '시민평가단상'은 고창군 식도락마을체험사업단, 군산시 다이룸협동조합, 남원시 남원시문화도시추진위원회, 부안군 슬지네전방, 임실군 임실군마을가꾸기협의회, 장수군 마을연구원 송명현 등 6곳이 수상했다. 완주문화재단 관계자는 "각 지역에서 문화예술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한 결과물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로 경쟁보다는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단, 익산시 익산문화재단, 전주시 전주문화재단 등 4곳이 선정됐다. 이와 함께 '시민평가단상'은 고창군 식도락마을체험사업단, 군산시 다이룸협동조합, 남원시 남원시문화도시추진위원회, 부안군 슬지네전방, 임실군 임실군마을가꾸기협의회, 장수군 마을연구원 송명현 등 6곳이 수상했다. 완주문화재단 관계자는 "각 지역에서 문화예술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한 결과물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로 경쟁보다는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동지셋달 긴 밤에 들려주는 우리 가락 우리 소리

국립민속국악원 송년국악잔치
22일 예원당서 무대



국립민속국악원은 22일 금요일 오후 7시30분 예원당에서 '동지, 송년국악잔치' 공연을 개최한다. 국악원 창극단·기악단·무용단이 총 출동하는 이번 공연은 한 해 동안 국립민속국악원 무대를 가득채운 대표작을 엄선하여 한자리에 선보인다. 동지셋달 긴긴밤 민속악의 전통을 이어가는 기악단의 연주와 가슴을 휘어잡는 박양덕 명창의 성음으로 감성하는 '육자배기·흥타령·시나위'를 시작으로, 김시습의 한문소설 '만복사저포기'를 토대로 새롭게 창작한 창극 '만복사 사랑가'의 주옥같은 노래곡이 이어진다. 창극 '만복사 사랑가'는 남원에 실제 존재했던 사할 만복사를 배경으로 만들어졌다. 극

은 이생과 저생의 경계를 무너트린 양생과 연화의 사랑이야기를 그린다. 작품은 덧없는 인생과 사랑일지라도 이는 지금의 자신을 존재하게 하는 가치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이번 공연은 주인공 양생의 묵백이 담긴 테마곡 '덧된 꿈이리도'와 양생과 연화의 사랑 노래 '운명' 그리고 극의 재미를 더해준 보살들과 저승사자들의 노래에서 합창곡까지 갈라 형식으로 꾸며진다. 공연의 대미는 1982년 초연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공연되고 있는 한국 창작춤의 스테디셀러 '춤, 그 신명'을 국립민속국악원 무용단이 장식한다. 공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http://namwon.gugak.go.kr>) 혹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로 안내 받을 수 있다. /정해은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2017 전북 문화인의 밤' 성료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지난 16일 연말을 맞아 도내 예술인과 관광·문화콘텐츠 관련자를 초청하여 2017전북문화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문화예술 공로자 6명에 대한 도지사 표창과 더불어 새만금 상설공연 '해적' 및 전북브랜드상설공연 '뽕다 심청'의 하이라이트 공연 그리고 '모악'의 사물놀이 공연으로 진행됐다. 이날 자리에서 고창공동체협회의 문화비평가 고길섭, 포스댄스컴퍼니 오해룡 대표, (사)한옥마을사람들 고혜선 대표, (주)하오문 하영섭 대표, (주)나인이즈 조용로 대표, 새만금상설공연 김충한 총연출가 등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전북 문화예술관광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북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지난 16일 '전북문화인의 밤 행사'를 연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와 공로상 수상자가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병천 대표이사는 재단은 "예술 터가 되도록 문화 저변 확대에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며 "예술인과 더 자주 소통하고,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정해은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젠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